

그림기록팀

“그림은 사진보다는 덜 사실적이긴 해도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을 더 강조할 수도 있고 감정도 더 드러낼 수도 있어요. 또 도구들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어떤 도구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도 느낌이 많이 다르니까 (기록을 할 때) 다양한 시도를 잘 녹여낼 수 있는 게 그림인 것 같아요”

(실습 사진 + 그림 등 이미지 삽입)

김윤이(그림기록팀 멘토)

9년째 은평에 살고 있는 그림책 작가입니다. 2020년 봄, 처음 겪는 거리두기 속에서 우연히 ‘여기 은평’ 프로젝트를 알게 되어 3년째 참여하고 있습니다. ‘로컬 아카이빙’이란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조금 놀라웠어요. 오래 관찰하고 기록하며 그림책을 만드는 작업을 해 왔으면서도,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이 저에게도 제가 해오던 것들을 하나하나 돌아보고, 점검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어주었습니다. 유명 명소를 그리는 것보다 나에게 의미있고 친밀한 곳을 그리는 일을 놓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에 힘을 더해주기도 했어요. 은평구에 살고 있지만, 잘 모르는 곳이 아직 많기도 하고요. 몇 년 사이에 익숙한 곳들이 하나씩 사라지는 아쉬운 일도 몇 번 겪었습니다. 은평 아카이빙 작업 첫 해에 그랬던 불광문고가 사라졌고, 책방 비영은 모습을 바꾸었습니다. 저희 집 근처를 비롯해서 은평구 여기저기에서 재개발 사업이 한창이니 몇 해 사이에 더 많은 것이 바뀌겠지요. 그림을 그린다는 행위는 대상을 ‘자세히’ 바라보게 합니다. 그림으로 기록하는 일을 통해서 아쉬운 변화를 조금 더 잘 보고 담아둘 수 있으면, 기억할 수 있는 일도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팬데믹 상황을 보내며 ‘우리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일에 관심을 갖게 된 사람들이 늘어났고 또 그런 분들과 만나게 된 것도 이 프로젝트 덕분에 생긴 수확입니다. 특히 올해는 모처럼 여럿이 대면으로 모임을 가질 수 있어서 좋았어요. 6주라는 실습 시간이 꽤 빠듯해서 모두들 많이 고생하셨지만, 이런 모임이 가능해졌다는 것도 지난 2년을 돌아보면 그나마 다행이지요. 여전히 방심할 수는 없는 코로나 상황에서, 엄청난 폭염 속에서, 폭우를 피해, 고군분투하며 실습을 마친 분들께 박수를 보냅니다. 여러분, 이제 시작이에요. 실습이 끝났으니 이제 각자의 작업과 함께 계속 만나게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박비나(그림기록팀)

구파발에서 태어나 40년이 넘는 인생의 시간들을 은평구에서 보내온 '은평 그림기록자'입니다. 산악기자였던 아버지 덕분에 기자촌 근처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아직까지도 북한산의 기운을 받으며 중년의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은평에서 살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또 계속 오래 살아보자는 마음도 무의식중에 있는듯 합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아카이빙'이란 단어를 처음 알게되었습니다. 사실 지나고 보니 저도 아카이빙을 하고 있었습니니다. 동네의 여러 모습을 그려 내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프로젝트 참여 전후의 차이는 확실합니다. 그것은 바로 '자각'입니다. 나의 손과 붓, 종이는 그대로이지만 '아카이빙'이라는 안경을 쓰니 확실한 이유와 목적이 그림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림에 나의 동네를 더 구체적으로 담아보려는 마음이 커졌습니다. 다시 작은 첫 발걸음을 내딛는 마음으로 그림들을 그리려 합니다. 아카이빙의 주제나 목적의 크기, 방향이 조금씩 다르겠지만 내가 남기는 '기록'으로 누군가에게 새로운 아카이빙의 길을 보여 줄 수 있다면 그것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림으로 남기는 은평의 모습은 훗날 어떻게 바뀌어 있을까요?

사진설명 (구)신도초등학교 운동장

초등학교 입학 전에 신도초등학교에 다니던 오빠와 놀던 운동장 놀이터. 어머니와 셋이서 학교 근처 가게에서 과자를 하나씩 사 가지고 가서 사진을 찍고 놀았던 기억이 담긴 사진

김진선(그림기록팀)

일상적인 풍경에 관심이 많습니다. 익숙한 장소와 새로운 장소 가리지 않고, 다양한 풍경을 관찰하며 걷기를 좋아하며, 저만의 방식으로 장소와 풍경과 관계를 맺으며 가기, 보기, 담기, 그리기, 쓰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은평 아카이빙 프로젝트를 통해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다시 관찰자의 시선으로 은평에 돌아왔는데요. 지역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기록한다는 건 자주 왔다갔다 하고 익숙할만큼 친해져 특별히 크게 새로운 게 없을지라도, 저에게는 그날의 날씨, 시간, 함께한 사람들, 길 위에서 마주한 낯선 사람들 등 매 순간마다 같은 순간과 풍경은 하나도 없기에 새로운 자극인 것 같습니다. 현재는 기억하기 위해 습관처럼 지금 이 순간, 제가 잘 기록할 수 있는 방식으로 현재를 담자는 의미로 하고 있지만, 과거에도 그랬듯 지금 이렇게 은평을 기록한 우리의 작업들에 시간이 켜켜이 쌓이며 역사가 되는 기록의 힘을 이번에도 경험하게

되겠지요? 저는 앞으로도 이 도시 안에서 또 어떤 도시, 장소와 만날지 기대하며 도시의 나그네, 일상 속의 영감 수집가가 되고자 합니다.

이신정(그림기록팀)

얼마 전까지도 은평은 저에게 낯선 곳이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불과 몇 달만에 은평은 제게 평범하면서도 특별한 지역이 되었습니다.

개인의 사적인 기록들은 쉽게 소멸해 버린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아카이브는 개인의 기록일지라도 지속성과 연속성을 가질수 있는 듯 합니다. 은평이라는 로컬에서 개인이 선택한 대상을 각자의 방식으로 기록해나가면서 기록하는 시선에 대한 고민도 많았지만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다른 참가자를 통해 은평을 기록하는 여러 형태의 방식을 볼 수 있었던 점 또한 좋았습니다. 이런 개개인의 기록들이 물줄기처럼 모여져서 '2022년 은평 아카이브' 라는 큰 강을 만들어내겠지요. 저에게 기록은 오늘의 나를 기억하는 방법인 동시에 역사입니다. 2022년 뜨거운 여름을 함께 했던 사람들 모두 제 삶의 한 부분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김수희(그림기록팀)

예술을 사랑하고 다양한 분야에 관심이 많은 도시 사람입니다. 은평과 연고는 없었지만, 그림을 그리고 기록하는 습관을 되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방문해 본 적도 없는 은평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관찰하며 기록을 남기는 일련의 거의 모든 과정이 녹록지 않았습니니다. 부족한 시간, 굶은 날씨와 저질 체력,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는 조 모임과 멘토링, 마음처럼 진행이 안 되는 작업물... 그때 계속할 힘을 준 것은 이제는 소중한 추억이 된 은평에서의 뜨거웠던 여름날과, 함께 땀 흘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 예전처럼 남기고 싶은 무언가를 글과 그림으로 기록할 수 있게 되어 기쁘고, 제가 앞으로 기록할 내용들을 기대합니다.